

돌아온 야곱에게 일어난 일들

야곱이 베엘에 돌아왔다. 도망자가 되어 가나안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뵈고 기도했던 그 자리로 돌아왔다. 베엘은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처음 시작된 곳이다. 이십 년 만에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 창세기 35:11-12**

도망치던 밤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하셨고(28:13),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퍼져나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셨던 땅을 야곱에게 주신다 약속하셨고 야곱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신다는 말씀이다. 이십 년이 지나 베엘에 돌아왔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약속도 여전하다. 그러나 베엘에 온 야곱에게 달라진 것들이 있었다. 그가 가장 사랑하고 위안을 얻었던 사람들의 죽음과 상실이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으매 그를 베엘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곳이라 불렀더라 / 창세기 35:8**

베엘에 도착한 직후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는다. 드보라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삭과 혼인하기 위해 가나안으로 향할 때부터 동행했던 여인이다. 드보라가 언제부터 야곱과 함께 동행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리브가의 유모였으니 야곱에게는 할머니와 다름 없는 여인이다. 야곱의 도피생활에 드보라는 적지 않은 위안이 되었을 것이다. 장례를 마친 야곱은 그녀의 무덤에 있는 상수리 나무를 ‘통곡의 상수리나무’라고 불렀다.

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야곱이 가장 사랑한 여인 라헬이다. 라헬은 베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를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

야곱의 슬픔은 끝나지 않았다. 레아에게서 낳은 장남 르우벤이 야곱의 첩 빌하와 동침했다. 빌하는 임신하지 못하는 라헬이 야곱에게 주어 단과 납달리를 낳은 여인이었다. 장자의 명분을 물려 받을 르우벤의 범죄, 그것도 야곱의 아내. 질서로 보면 어머니다.

이십 년 만의 귀향. 도피생활에 큰 위로가 되었던 드보라가 죽었고 도피생활에서 야곱이 가장 얻고 싶어 했던 라헬이 죽었고, 첫 아들 르우벤은 자신의 첩과 음행을 저질렀다. 이후에 일어난 일 역시 야곱에게 큰 아픔을 주었다. 요셉의 죽음이었다(요셉의 생존 사실을 모르는 야곱에게 요셉은 죽은 아들이었으니까).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움켜쥐며 살아온 야곱이다. 그러나 그가 움켜쥐 모든 것이 그에게 상실감을 주었고 그의 곁에서 사라졌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함이 없다.

야곱은 베엘을 잊고 있었다. 고향으로, 네 족속에게 돌아가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은 베엘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에게 가장 큰 걱정은 라반에게서 안전하게 벗어나는 것이었고 에서의 칼날을 피하는 것이었다. 돈을 주고 받을 사고,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지은 곳도 베엘이 아닌 세겜 앞이었다.

야곱은 베엘을 잊었어도 하나님께서는 베엘에서 드렸던 야곱의 기도와 서원을 기억하고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기다리시었다. 그가 평안하게 돌아오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셨다. 야곱의 귀향은 아버지 이삭을 향한 귀향도, 지리적인 의미의 가나안을 향한 것도 아니었다. 야곱이 돌아와야 하는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서원했던 그 자리, 그 스스로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던 베엘이었다. 라반의 집을 떠난 야곱이 처음 향했어야 하는 곳은 애써 모은 돈으로 값주고 사서 새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었다.

야곱이 겪은 최대의 불행은 르우벤의 범죄나 라헬의 죽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집을 잊어버린 것이었다. 그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었고, 기다리시는 분이 계셨다. 떠나는 순간에도 함께 하였고, 의식하지 않은 때에도 곁에 계시며 돌아오는 길에도 동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와야 했다.

당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다 생각된다면 야곱의 귀향을 주의해서 보기 바란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야곱에게 그러셨듯이.

- * 이제 본문은 이삭의 죽음과 에서의 뒷 이야기를 기록하고 요셉으로 이어진다.
- * 이삭은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 이십삼 년을 더 살고 죽었다.

관련 링크 : 에서가 잃은 것 <http://a4qt.com/?p=1852>